

즉시 보도용

2025년 7월 25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모두를 위한 올림픽: 캐런 버스 시장, **2028년** 패럴림픽 대비해

개최 도시 접근성 약속 서명

LA 최초 패럴림픽 개최...시청 내 점자 번역 서비스도 제공

로스앤젤레스 –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 35주년을 앞두고, 캐런 버스 LA 시장은 이멜다 파디아 시의원, 국제패럴림픽 위원회(IPC) 콜린 렌 패럴림픽 경기 담당 최고책임자, 레이놀드 후버 LA28 조직위원회 CEO, 패럴림픽 선수들 및 로컬 리더들과 함께 2028년 패럴림픽을 ‘모두를 위한 올림픽(Games For All)’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LA시는 장애인이 포함된 진정한 포용의 패럴림픽 대회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식 올림픽 개최 도시 접근성 약속서에 서명
- 게임 접근성 계획(Games Accessibility Plan) 수립 및 실행 관리
- 대형 행사국 최초의 접근성 책임자(Accessibility Chief) 임명

또한 LA시 장애인국과 브레일연구소의 협력 아래 시청 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깃발 전시물에 점자 번역물을 설치했다. 관련 영상은 [여기](#), 시장 약속문은 [여기](#)서 확인.

캐런 버스 시장은 “장애인법 제정 이후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모든 시민이 LA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시 부서 전반,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해 ‘가장 접근 가능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너무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존중받지 못했다. 이제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시설, 정보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그 유산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멜다 파디아 시의원도 “어린 시절 운동 장애를 겪었던 경험이 있어 접근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존엄성과 포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패럴림픽 접근성 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안을 발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LA28은 역사적인 기회이며, 모든 이가 환영받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콜린 렌 국제패럴림픽 위원회 패럴림픽 경기 담당 최고책임자는 “LA시와 LA28의 접근성 있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 약속은 장애인법이 제시한 약속을 진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며 “패럴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장벽을 없애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행사는 LA84/John C. Argue 수영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곳은 1932년 LA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장소로, 이후 ADA 제정과 1984년 올림픽 이후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수영장 리프트 등 다양한 접근성 개선이 이뤄졌다. 현재 이곳에서는 LA시의 PlayLA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형 수영 수업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등록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1990년 7월 26일에 제정된 중대한 인권 법령으로 고용, 교육, 교통, 공공장소 및 민간 공간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LA시는 2028년 ‘모두를 위한 올림픽’을 실현하고, 모든 앤젤리노가 그 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